

청소년의 학업 부담감, 부정적 정서, 감정표현불능증 및 지각된 부모양육행동과 신체화 증상과의 관계

신 현 균[†]

서울임상심리연구소

본 연구에서는 한국 청소년에게서 신체화 증상의 기제를 이해하기 위해 학업 부담감, 지각된 부모의 양육 태도, 부정적 정서, 및 감정표현불능증과 신체화 증상과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았다. 232명의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상관과 단계적 중다 회귀 분석을 사용해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신체화 증상, 학업 부담감, 부정적 정서, 및 감정표현불능증 등이 상호 상관이 큰 것으로 나타났고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방치와 학대가 신체화 증상과 큰 상관을 보였다. 중다 회귀 분석 결과, 신체화 증상을 설명하는데 가장 유의미한 변인은 부정적 정서였으며, 다음으로 아버지의 방치하는 양육행동, 어머니의 학대, 성, 아버지의 비일관적인 양육행동, 학업 스트레스, 스스로 평가한 성적이 포함되었다. 부정적 정서를 설명하는 요인으로는 학업 스트레스, 감정표현불능증, 어머니의 학대, 아버지의 비일관적인 양육행동이 포함되었으며, 학업 스트레스를 설명하는 요인들로는 어머니의 과잉 간섭, 아버지의 합리적인 설명, 감정표현불능증, 성, 스스로 평가한 성적, 어머니의 과잉 기대, 전체 석차, 어머니의 애정 등이 포함되었다. 이들 결과의 의미와 성차와 연령에 따른 차이점 등이 논의되었고, 청소년의 정신건강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사점이 제안되었다.

주요어 : 신체화, 학업 부담감, 부정적 정서, 감정표현불능증, 지각된 부모양육행동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신 현 균 / 서울임상심리연구소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74-5 반송빌딩 4 층/
FAX : 02-3446-0696 / E-mail : shin@yesucan.co.kr

한국 청소년들이 학업과 성적에 대한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 건강상의 문제를 보인다는 것이 여러 연구들에서 밝혀져 왔다(노혜숙, 1986; 오미향과 천성문, 1994; 원호택과 이민규, 1987). 고등학교 생들의 학업 및 학교 생활에 대한 스트레스가 계열이나 성별에 관계없이 다른 스트레스 수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강승호, 1999), 인문계 학생의 경우 실업계 학생보다 정신병리에 있어 더 많은 위험 요인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학생들의 학업 부담감이 정신 건강 문제와 직결됨을 알 수 있다(사회정신건강연구소, 1999). 또 이경아(1999)의 연구에서도 중,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여러 심리 사회적 변인들 중 학업 관련 스트레스와 자아 존중감이 학교 적응 문제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생의 학업 스트레스 요인 중 시험, 성적, 등이 가장 주된 스트레스라는 연구 결과도 있다(오미향과 천성문, 1994). 대학 입시를 앞둔 1000명의 수험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수험생의 고민으로 학업성적이 50.3%, 장래 진로 문제가 37.4%로, 총 87.7%가 성적과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사회정신건강연구소, 1997). 이런 연구 결과들을 보면, 학생들이 겪고 있는 스트레스 중 공부나 성적 등과 같은 학업 문제가 가장 주된 스트레스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이처럼 학업 문제로 스트레스를 겪는 청소년의 정신 건강에 있어서 부모의 역할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부모의 관심이 부족하거나 과보호하는 양육 태도는 우울, 불안, 위축, 신체화 등의 내재화 문제를 유발하거나, 공격성, 비행 등의 외현화 문제와도 관련된다(Rey & Plapp, 1990). 적대적, 처벌적, 거부적, 과잉 통제하는 부모의 양육 행동은 공격성의 발달과 관련된다(Perris, Arrindell, & Eisemann, 1994). 신체적 학대와 방치는 우울

비행 등에 결정적인 위험 요인이다(Cicchetti & Toth, 1995). 국내에서는 이은희(2000)의 연구에서 부모-자녀 의사소통 및 부모의 지원이 청소년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옥정(2001)은 청소년 비행집단, 위험집단과 정상 집단의 애착유형과 지각된 부모양육행동을 비교 분석한 결과, 정상집단에 비해 비행집단과 위험 집단이 부모의 애정과 합리적 설명을 유의미하게 낮게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연구 결과들은 청소년의 정신 건강이 부모의 양육 방식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학업 스트레스의 경우에도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의 높은 기대, 강압적인 양육 방식과 간섭, 공부에 대한 압력, 부모의 비일관적인 태도나 학대 등이 스트레스를 가중시켜 청소년의 정신 건강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Eskilson, Wiley, Muehlbauer, 및 Dodder(1986)는 학교 생활에 대한 부모의 지나친 압력이 청소년의 자아 존중감을 낮추며 일탈 행동을 하게 하고 실패감을 느끼도록 한다고 하였다. 실제로 사회정신건강연구소(1997)에서 수험생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의하면 부모의 기대가 부담스럽다는 경우가 67.7%에 달했다. 이상의 연구 결과들을 고려할 때, 청소년의 정신 건강이나 학업 스트레스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의 양육 태도를 반드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많은 청소년들이 학업 스트레스를 겪고 있지만, 스트레스 반응에서는 다양한 개인 차이를 보인다. Omizo, Omezo, 및 Suzuki(1988)에 의하면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이 경험하는 스트레스 증상을 각 유형별로 조사한 결과, 심리적 증상으로는 불안, 우울, 동기 결여, 위축, 주의력 부족, 불행감, 자살 생각, 모험적 행동의 부족, 비현실적 목표, 낮은 자기 효능감과 악몽 등이 포함되었으며, 생리적으로는 두통, 복통, 긴장, 피로

고혈압 등의 증세가 나타났다. 행동적으로는 불면증, 대인 문제, 부적응과 부적절한 행동, 싸움, 과식, 흡연, 충동적 행동, 자기 파괴적 행동, 범죄 행동 등이 일어났다. 이처럼 청소년들의 스트레스 반응은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어떤 경우에는 우울과 불안 증상을 현저하게 보이고, 어떤 경우에는 음주, 가출 등의 비행 행동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또 다른 경우, 두통이나 소화불량 등을 호소하는 신체화 증상을 보인다. 특히 시험 기간이 다가오면 많은 학생들이 다양한 신체화 증상을 보이는 것을 임상 현장에서 흔히 볼 수 있다. 사회정신건강연구소(1997)에서 수험생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의하면, 70-80%의 학생들이 심인성 신체 증상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된 증상으로는 온몸이 나른함 83.5%, 두통 77.4%, 소화불량 71.1% 순이었고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더 많은 신체 증상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처럼 심리적인 원인에 의해 신체 증상을 호소하는 신체화 증상은 한국 문화에서 흔히 나타나며, 신체화의 원인과 기제에 대한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신현균, 2000; 신현균, 1998; 신현균과 원호택, 1997; 원호택과 신현균, 1998). 신체화가 부정적 정서(negative affectivity), 정서 표현의 억압이나 감정표현불능증(alexithymia) 등의 성격 문제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는 연구들이 수행되어 왔으며 비교적 일관성 있는 결과를 보인다(신현균과 원호택, 1997; Barsky & Klerman, 1983; Katon, 1986; Katon, Kleinman, & Rosen, 1982; Romano & Turner, 1985; Wilson, Widmer, & Cadoret, 1982; Wittenborn & Buhler, 1979).

부정적 정서는 주관적 불편감, 신경질, 두려움, 분노, 죄책감 등을 포함하는 혐오적인 기분 상태를 나타내는 구성 개념으로, 이런 부정적 정서가 건강에 대한 불평을 유발한다. 예를 들면 사람들은 동일한 신체 자극이라도 불안할 때 더 고통스

럽게 평가한다(Barsky & Klerman, 1983; Beecher, 1966; Hill, Kornetsky, Flanary, & Wilder, 1952; Sternbach, 1978). 부정적 정서와 신체 증상이나 건강 불평 간의 상관은 .30-.50으로 알려져 있다(Beiser, 1974; Bradburn, 1969; Harding, 1982; Watson & Pennebaker, 1989). 국내에서는 신현균(2000)의 연구에서 부정적 정서와 신체화 간의 상관성이 남성 정신과 환자의 경우 .33, 여성 정신과 환자의 경우 .49, 남성 대학생의 경우 .49, 여대생의 경우 .44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련성을 보였다. 경로 분석 결과, 정신과 환자들의 경우, 부정적 정서가 사소한 신체 문제를 신체 질병에 귀인하는 경향이나 신체 감각을 증폭해 지각하는 등의 인지과정의 매개를 통해 신체화 증상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의 경우에는 인지과정의 매개를 거치지 않고도 부정적 정서가 신체화 증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부정적 정서가 신체 증상을 경험하는데 영향을 주는 현상에 대해 몇 가지 설명이 가능하다. 첫째, 부정적 정서로 인해 어떤 사건이나 환경에 대해 경계하는 인지 양상을 보여 상황을 더 염려스럽게 정보 처리하게 된다(Gray, 1982; Tellegen, 1985). 따라서 미묘한 신체 감각을 감지하는 역치가 더 낮아져서 사소한 신체 역기능을 더 쉽게 지각할 수 있다(Wiebe, 1994). 또 다른 가능성은 부정적 정서가 강한 사람들이 더욱 내적으로 초점화되어 있기 때문에 신체 불평이 많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감정 표현의 억압 및 감정표현불능증에 대한 연구들에 의하면, 부정적 정서 그 자체보다 정서 표현을 억제하고 억압하는 것이 더 큰 문제일 수 있다(Pennebaker, Kiecolt-Glaser, & Glaser, 1988; Watson & Pennebaker, 1989). 감정 표현의 억제는 장기적인 생리적 각성과 신체 불편감을 유

발한다(Beutler, Engle, Oro'Beutler, Daldrup, & Meredith, 1986). Malatesta, Jonas, 및 Izard(1987)는 실험실에서 분노, 불안, 슬픔 등의 여러 정서를 유발시킨 후 얼굴 표정에 나타난 감정 표현의 정도와 신체 증상(관절염, 피부, 순환기 증상) 간의 관계를 조사한 결과, 신체 증상이 감정 표현과 부적인 상관을 보여(최고 -.38), 감정 억제가 신체 증상과 연관되어 있음을 보였다. 이처럼 일시적으로 감정표현을 억제하는 것도 신체 증상에 영향을 주지만, 이보다 더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것은 지속적으로 감정을 억압하는 성격 특성이다. 감정 표현을 억제하는 성격 특성은 우울, 불안 점수 뿐 아니라 신체 증상 점수와도 관련된다(Larson & Chastain, 1990). 이런 성격의 소유자들은 감정 표현을 잘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서상태와 관련해 흔히 나타나는 신체 감각을 정서적 갈등이나 스트레스보다는 신체 질병에서 비롯된 것으로 귀인할 수 있다(Taylor, 1984; Taylor, Bagby, & Parker, 1991). 국내에서도 고경봉(1994), 송지영, 김태수, 오동재, 윤도준, 및 염태호(1994), 신현균과 원호택(1997) 등의 연구에서 감정표현불능증이 신체 증상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음이 밝혀졌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성인의 신체화에 대한 연구는 상당히 이루어져 있지만, 청소년의 신체화 증상에 대한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많은 청소년들이 두통이나 소화 불량 등의 신체 증상을 호소하는 것을 볼 때, 청소년의 신체화 증상에 대한 이해와 예방 및 개입이 필요하다. 청소년의 신체화 증상과 관련이 있는 연구로, 신체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변인들을 고려한 신현균(2000)의 연구를 꼽을 수 있다. 연구 결과, 성인 신체화 내담자의 경우, 부정적 정서와 감정표현불능증 등의 성격특성이 인지 과정의 매개에 의해 신체화를 유발하는데 비해, 대학생의 경우에는 부정적 정서와 감정표현불능증 등의 성격특

성이 신체화 증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결과를 보여, 청소년의 신체화 증상을 이해하기 위해 대학생과 유사한 특성을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 특히 성차를 고려하는 것도 필요한데, 여대생의 경우에는 부정적 정서가 신체화 증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음이 밝혀졌고, 이에 비해, 남학생의 경우에는 부정적인 정서 뿐 아니라 감정표현불능증이 신체화 증상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 문화에서 성에 따라 정서 문제를 의사소통하는데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어 심리 치료에서 성에 따라 차별적인 치료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청소년에서 신체화 증상을 유발하는 과정과 기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개인의 성격 특성과 주된 스트레스, 부모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알 수 있다. 한국 청소년의 대표적인 스트레스인 학업 부담감이 신체화 증상과 관련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즉 학업 부담감으로 인한 부정적인 정서와,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억압할 때 신체화 증상으로 표출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부모의 양육 태도가 스트레스를 가중시켜 신체화 증상을 악화시킬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 청소년의 학업 부담감, 지각된 부모의 양육행동, 부정적 정서, 및 감정표현불능증과 신체화 증상 간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선행 연구들에서 신체화 증상의 기제에서 성차를 시사하고 있고, 중, 고등학생의 학업 스트레스 증상 중 여학생이 생리적 증상을 더 많이 보인다는 연구 결과를 볼 때(사회정신건강연구소, 1997; 오미향, 천성문, 1994), 성차의 가능성이 시사되므로 성별에 따른 차이도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부가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방 법

연구대상

청소년 집단은 서울과 경기도 소재의 중학교와 인문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232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중학생은 116명으로 남학생 57명, 여학생 59명이었고, 고등학생 역시 116명으로 남녀 각각 58명씩이었다.

도구

간이 정신 진단 검사(SCL-90-R) 신체화 척도

이 척도는 김광일, 김재환 및 원호택(1984)이 제작한 척도로 개인이 호소하는 임상 증상들을 9개 하위 차원에서 측정하는 90문항으로 구성된 자기 보고식 질문지이다. 본 연구에서는 12문항으로 구성된 신체화 척도만을 사용하였으며 여러 신체 증상을 5점 척도상에 평정하게 되어있다. 이 척도는 개인이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신체 증상들의 정도를 측정할 수 있다. 본 연구 대상인 청소년 자료의 경우, 내적 일관성 신뢰도 α 는 .84였다.

부정적 정서 척도

Watson, Clark 및 Tellegen(1988)은 안정된 특질로서의 부정적 정서를 측정하기 위해 10개의 형용사를 5점 척도상에 평정하게 하는 자기보고형 척도를 개발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판 부정적 정서 척도로 사용하기 위해 Watson 등(1988)이 제작한 척도의 문항들을 포함하면서 안신호, 이승혜 및 권오식(1994)의 한국어 정서 단어에 대한 연구를 참조하였다. 안신호 등(1994)의 연구에서 부정적인 정서요인으로 밝혀진 분노, 권태, 놀람, 수치, 고독, 애태움, 연민, 공포, 허무, 상실 등 10가지를 참조하였다. 각각의 정서요인에 높은 부하

량을 가지는 형용사들 중에서 요인 부하량이 .30 이상이고 흔히 사용하며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각 요인당 3개씩 선정하여, 총 30개 단어로 구성해 한국판 부정적 정서 척도로 사용하였다.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구한 내적 일관성 신뢰도 α 는 .93이었다.

본 연구 대상인 청소년 자료의 경우 30문항에 대한 내적 일관성 신뢰도 α 는 .93이었고, 10개 세부 정서들에 대한 α 는 분노 .77, 권태 .82, 놀람 .76, 수치 .79, 고독 .79, 애태움 .82, 연민 .87, 공포 .81, 허무 .75, 상실 .66이었다.

한국판 감정표현불능증 척도

Bagby, Parker 및 Taylor(1994)가 제작한 Toronto 감정표현불능증 척도 개정판(20-Item Alexithymia Scale; TAS-20)을 수정 번안한 척도로 23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5점 척도이다(신현균과 원호택, 1997). 척도 점수는 23문항을 더해서 계산되며 요인별로도 계산된다. 3요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요인 1은 정서를 확인하고 정서와 정서 작성에서 오는 신체 감각 간을 구별하는 능력을 측정하고 요인 2는 외적으로 지향적 사고를 측정하며 요인 3은 정서를 타인과 의사소통하고 표현하는 능력을 측정한다. 대학생 집단에서 세 요인별 α 는 각각 .83, .73, .85였다. 3주 간격의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74, .77, .79였다.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행동척도

부모의 양육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허묘연(2000)이 개발한 자기 보고형 질문지로, 애정, 합리적 설명, 학대, 과잉간섭, 과잉기대, 감독, 방치, 비밀관성의 8요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총 43문항이다. 각 문항은 4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으며, 요인 간 내적 합치도는 .68에서 .86이었다. 각 요인의 조작적 정의는 다음과 같다. '애정'은 자

녀에게 친밀감을 나타나고 존중, 수용해주며 자녀의 요구에 민감한 태도를 말한다. '합리적 설명'은 양육에 있어 분명하고 합리적인 기준과 이유를 가지고 이를 일관적이고 애정적인 방식으로 주장하는 것이다. '학대'는 자녀의 행동과 상관없이 과도하거나 정기적으로 자녀에게 해를 주고 신체적 손상을 남기는 경우이다. '과잉간섭'은 자녀의 행동에 대한 통제나 제약으로, 자녀의 흥미나 능력에 관계없이 부모의 기준에 맞추도록 요구하고 개인적인 부분까지 간섭하는 것이다. '과잉기대'는 자녀의 능력에 비해 과도한 기대수준을 가지고 지나치게 경쟁적이고 지적인 성공을 강조하는 행동이다. '감독'은 자녀의 학교 내외 생활이나 교우관계 등 전반적인 생활에 대해 알고 있는 정도이다. '방치'는 자녀의 신체적, 지적인 측면에서 도덕적 측면에 이르기까지 모든 잠재력을 충분히 실현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양육행동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다. '비일관성'은 자녀에 대한 훈육기준에 일관성이 없이 상황에 따라 다른 양육행동을 나타내는 것으로 정의된다.

학업 스트레스 척도

공부와 성적에 대해 주관적으로 느끼는 부담감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0점(전혀 부담감이 없다)에서 100점(부담감이 매우 크다) 사이의 숫자를 쓰도록 하였다.

자기 평가 성적

자신의 성적을 스스로 어느 정도라고 평가하는지를 상위권, 중상위권, 중위권, 중하위권, 하위권의 5점 척도 상에 표시하도록 하였다.

절차

교실에서 담임 교사의 지시 하에 SCL-90-R 신

체화 척도, 부정적 정서 척도, 한국판 감정표현불능증 척도,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행동 척도, 학업 스트레스 척도를 단체로 실시하였다. 질문지를 작성하는데 협조해 준 학생들에게 개별적으로 결과를 통보해 주기로 하고 협조를 구하였다.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질문지 앞에 이메일 주소를 적게 하고, 채점 결과를 이메일로 개별적으로 통보하였다. 질문지를 실시하는데 걸린 시간은 35분에서 40분 정도였다. 총 234명의 자료를 수집했으며, 문항 작성을 한 쪽 이상 빠뜨린 2명의 자료를 분석에서 제외하고 232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자료 분석

척도 간 상호 상관을 구하고 신체화 증상을 설명해 주는 요인들을 알아보기 위해 단계적 중다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설명 변인으로 학업 스트레스, 부정적 정서, 한국판 감정표현불능증,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행동 척도의 8요인 점수, 성, 학교(중, 고), 자기 평가 성적, 전체 석차가 포함되었다.

결 과

학업 스트레스, 부정적 정서, 감정표현불능증,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행동, 및 신체화 증상 간의 상관

신체화 증상, 학업 스트레스, 부정적 정서, 감정표현불능증, 및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행동 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학교(중, 고)와 성에 따라 표 1에 제시하였다. 표 2를 보면 학업 스트레스, 부정적 정서, 감정표현불능증, 및 신체화 증상은 상호 상관이 큰 편이었다($r(232) = .25 (p < .001)$)

표 1. 학교(중, 고)와 성별 신체화 증상, 학업 스트레스, 부정적 정서, 감정표현불능증 및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행동 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 (N=232)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학년				학년				
	성				성				
신체화	중	남	6.93	6.71	부의 방치	중	남	8.16	2.56
		여	10.17	7.96		고	남	8.85	2.69
	고	남	7.17	5.13	부의 비일관성	중	남	8.00	2.58
		여	9.29	5.56		고	남	8.13	2.46
		(T점수49) (10.16)							
		(T점수51) (11.34)							
		(T점수49) (7.91)							
		(T점수50) (7.89)							
부정적 정서	중	남	57.28	20.37	모의 애정	중	남	18.09	4.27
		여	66.40	21.86		고	남	18.59	3.28
	고	남	62.22	18.49	모의 합리적설명	중	남	13.84	3.49
		여	59.63	17.25		고	남	14.58	2.94
감정표현불능증	중	남	35.19	11.18	모의 학대	중	남	9.37	3.77
		여	38.08	12.75		고	남	8.41	2.34
	고	남	42.19	11.57	모의 과잉간섭	중	남	16.35	4.41
		여	39.35	9.99		고	남	16.55	4.86
학업 스트레스	중	남	59.63	29.06	모의 과잉기대	중	남	14.99	4.24
		여	69.97	23.14		고	남	12.61	4.12
	고	남	65.12	22.59	모의 과잉기대	고	남	14.42	4.01
		여	69.44	19.47		고	남	12.07	3.55
부의 애정	중	남	17.74	4.24	모의 감독	중	남	11.12	3.67
		여	16.83	3.47		고	남	12.27	2.41
	고	남	16.00	3.81	모의 방치	중	남	7.91	2.69
		여	16.86	3.23		고	남	7.24	1.87
부의 합리적설명	중	남	14.68	3.45	모의 방치	고	남	8.04	2.03
		여	13.54	3.39		고	남	8.14	2.66
	고	남	13.89	3.51	모의 비일관성	중	남	8.19	2.37
		여	12.85	3.03		고	남	8.07	2.34
부의 학대	중	남	9.05	3.17	모의 비일관성	고	남	8.54	2.03
		여	8.61	2.86		고	남	8.70	1.93
	고	남	8.56	3.20					
		여	7.82	2.77					
부의 과잉간섭	중	남	14.00	4.47					
		여	15.01	4.37					
	고	남	15.09	4.11					
		여	14.61	3.88					
부의 과잉기대	중	남	14.04	4.58					
		여	12.48	4.05					
	고	남	13.86	4.53					
		여	12.72	3.89					
부의 감독	중	남	9.58	3.19					
		여	9.19	3.11					
	고	남	9.72	2.91					
		여	9.77	2.57					

표 2. 신체화 증상, 부정적 정서, 감정표현불능증, 학업 스트레스,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행동 간의 상관(N=232)

	1 ^a	2	3	4	5	6	7	8	9	10
1										
2	.50***									
3	.25***	.42***								
4	.34***	.42***	.25***							
5	-.12	-.16*	-.20**	-.14*						
6	-.15*	-.14*	-.09	-.22***	.58***					
7	.22**	.25***	.11	.22***	-.26***	-.26***				
8	.13	.24***	.15*	.26***	-.22***	-.06	.37***			
9	.12	.20**	.15*	.24***	-.15*	-.09	.23***	.56***		
10	-.16*	-.13	-.21***	-.20**	.43***	.41***	-.13	.01	.03	
11	.33***	.27***	.29***	.22***	-.57***	-.48***	.30***	.16*	.10	-.49***
12	.06	.27***	.25***	.19**	-.29***	-.28***	.42***	.37***	.26***	-.06
13	-.09	-.08	-.17**	-.08	.69***	.38***	-.12	-.17**	-.09	.32***
14	.01	-.02	-.04	-.12	.47***	.64***	-.15*	-.04	-.02	.36***
15	.28***	.21***	.13*	.09	-.11	.01	.53***	.14*	.19**	-.08
16	.20**	.29***	.19**	.26***	-.17**	.04	.26***	.63***	.39**	-.05
17	.14*	.22***	.13*	.23***	-.14*	-.02	.19**	.35***	.71***	.01
18	.02	.04	-.12	-.07	.33***	.27***	-.13*	-.08	-.04	.63***
19	.24***	.15*	.28***	.16*	-.39***	-.27***	.18**	.22***	.17*	-.35***
20	.12	.18**	.22***	.15*	-.11	-.18**	.23***	.28**	.22***	-.02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12	.32***									
13	-.40***	-.09								
14	-.31***	-.11	.58***							
15	.21**	.13*	-.16*	-.03						
16	.17**	.20**	-.19**	-.13*	.36***					
17	.08	.16*	-.14*	-.09	.35***	.55***				
18	-.23***	-.12	.41***	.37***	-.02	.12	.02			
19	.73***	.23***	-.56***	-.39***	.27***	.16*	.16*	-.41*		
20	.19***	.61***	-.17**	-.19**	.23***	.41***	.26***	-.03	.24***	

* $p < .05$. ** $p < .01$. *** $p < .001$.

^a 1. 신체화 증상 2. 부정적 정서 3. 감정표현불능증 4. 학업 스트레스 5. 아버지의 애정 6. 아버지의 합리적 설명 7. 아버지의 학대 8. 아버지의 과잉간섭 9. 아버지의 과잉기대 10. 아버지의 감독 11. 아버지의 방치 12. 아버지의 비밀관성 13. 어머니의 애정 14. 어머니의 합리적 설명 15. 어머니의 학대 16. 어머니의 과잉간섭 17. 어머니의 과잉기대 18. 어머니의 감독 19. 어머니의 방치 20. 어머니의 비밀관성

에서 $r(232) = .50 (p < .001)$. 또한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행동 중 아버지의 방치, 어머니의 학대, 어머니의 방치가 신체화 증상과 비교적 큰 상관을 보였다. 아버지의 학대, 방치, 비밀관성 및 어머니의 과잉 간섭은 부정적 정서와 큰 상관을 보였으며, 부모의 방치와 비밀관성은 감정표현불능증과 큰 상관을 보였다. 학업 스트레스와 관련성이 큰 변인들로는 아버지의 합리적 설명, 학대, 과잉 간섭, 과잉 기대, 방치, 어머니의 과잉 간섭, 과잉 기대 등이 포함되었다.

부모양육행동의 8 요인 간에는 부모의 애정파 합리적인 설명 간의 상호 상관이 크고, 부모의 학대와 비밀관성 간의 상호 상관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의 과잉간섭과 과잉기대 간에도 상관이 컸다.

부가적인 상관 분석에서 전체 석차는 학업 스트레스, 부정적 정서, 신체화 등과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지만, 자기가 주관적으로 평가한 성적은 학업 스트레스와 $.15(p < .05)$ 의 미미하지만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다. 성이 신체화와 $.21(p < .001)$ 의 상관을 보여 여학생이 신체화 증상을 더 많이 보였고, 학년이 감정표현불능증과 $.17(p < .01)$ 의 상관을 보여, 중학생에 비해 고등학생이 감정표현을 더 안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계적 중다 회귀 분석

학업 스트레스, 부정적 정서, 감정표현불능증,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행동이 신체화 증상을 얼마나 설명해줄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SCL-90-R의 신체화 척도 점수를 종속 변인으로 하고 학업 스트레스, 부정적 정서, 감정표현불능증,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행동 점수를 설명 변인으로 하는 단계적 중다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부가적으로 성, 학교(중, 고), 스스로 평가한

표 3. SCL-90-R의 신체화 척도 점수에 대한 학업 스트레스, 부정적 정서, 감정표현불능증,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행동, 성, 학교(중, 고), 자기 평가 성적 전체 석차의 중다 회귀 분석표(N=232)

예언변인	R	R ²	R ² 증가량	Beta	F 변화량
부정적 정서	.49	.24		.35	71.18***
부의 방치	.54	.29	5%	.22	45.62***
모의 학대	.56	.31	2%	.19	33.69***
성	.58	.34	3%	.15	28.56**
부의 비밀관성	.60	.36	2%	-.17	25.14**
학업 스트레스	.62	.38	2%	.18	22.59**
자기 평가 성적	.63	.39	1%	-.14	20.78*

* $p < .05$. ** $p < .01$. *** $p < .001$.

성적, 전체 석차, 등도 설명력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설명 변인에 포함시켰다. 중다 회귀 분석 결과는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부정적 정서가 신체화 증상을 예언하는데 가장 유의미한 설명 변인으로, 총 변량의 24%를 설명하였다. 10개의 세부 정서들과 신체화 증상과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상관 분석을 실시한 결과, 애태움($r(232) = .49 (p < .001)$), 허무($r(232) = .45 (p < .001)$), 분노($r(232) = .43 (p < .001)$), 고독($r(232) = .42 (p < .001)$), 상실($r(232) = .41 (p < .001)$), 공포($r(232) = .38 (p < .001)$), 연민($r(232) = .29 (p < .001)$), 놀람($r(232) = .26 (p < .001)$), 권태($r(232) = .19 (p < .01)$), 수치($r(232) = .04 m.$) 순으로 관련성이 있었다.

다음으로 아버지의 방치하는 양육행동, 어머니의 학대, 성, 아버지의 비밀관적인 양육행동, 학업 스트레스, 스스로 평가한 성적이 유의미한 설명 변인으로 이들 변인들의 총 설명 변량이 40%였다. 예상과 달리 부모의 과잉기대나 과잉간섭이 유의미한 설명 변인으로 포함되지 않았지만, 이들 변인이 학업 스트레스, 비밀관적 양육행동과 상호 상관이 큰 바, 이들 변인의 중요성도 간

과해서는 안될 것으로 보인다.

남학생과 여학생의 차이점을 알아보기 위해 부가적인 중다 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 남학생의 경우, 부정적 정서, 어머니의 방치, 어머니의 학대, 어머니의 합리적 설명, 학업 스트레스, 자기 평가 성적 순으로 신체화 증상에 대해 유의미한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총 변량의 49%를 설명하였다. 이에 비해 여학생의 경우, 부정적 정서가 유일하게 신체화 증상에 유의미한 설명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총 변량의 24%를 설명해 남학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설명 변량이 작았다.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차이점을 보면, 중학생의 경우, 부정적 정서, 학업 스트레스, 어머니의 학대, 아버지의 비밀관, 아버지의 방치 순으로 신체화 증상에 유의미한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총 변량의 46%를 설명하였다. 이에 비해 고등학생의 경우, 부정적 정서, 아버지의 방치, 성 순으로 신체화 증상에 유의미한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총 변량의 24%를 설명해 중학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설명 변량이 작았다.

신체화 증상을 예언하는데 있어서 부정적 정서가 가장 큰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난 바, 부정적 정서를 설명해 줄 수 있는 요인들을 알아보기 위해 부정적 정서 점수를 종속 변인으로 하고 설명 변인으로 학업 스트레스, 감정표현불능증, 부모양육행동, 성, 학교(중, 고), 자기 평가 성적, 전체척차, 등을 넣어 단계적 중다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4를 보면, 학업 스트레스가 부정적 정서를 가장 잘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총 변량의 19%를 설명하였다. 다음으로 감정 표현불능증, 어머니의 학대, 아버지의 비밀관적인 양육행동이 유의미한 설명 변인으로 이들 변인의 총 설명 변량이 32%였다.

표 4. 부정적 정서 점수에 대한 학업 스트레스, 감정표현불능증,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행동, 성, 학교(중, 고), 자기 평가 성적, 전체 척차의 중다 회귀 분석표 (N=232)

예언변인	R	R ²	R ² 증가량	Beta	F	변화량
학업 스트레스	.44	.19		.33	53.08	***
감정표현불능증	.53	.29	10%	.28	44.96	***
모의 학대	.56	.31	2%	.14	33.25	*
부의 비밀관성	.57	.32	1%	.13	26.67	*

* $p < .05$. ** $p < .01$. *** $p < .001$.

부가적인 중다 회귀 분석에서 남학생과 여학생의 차이점을 보면, 남학생의 경우, 감정표현불능증, 어머니의 기대, 학업 스트레스, 순으로 부정적 정서를 유의미하게 설명하였으며, 총 변량의 38%를 설명하였다. 이에 비해 여학생의 경우, 학업 스트레스, 감정표현불능증, 학교(중, 고) 순으로 부정적 정서에 유의미한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총 변량의 29%를 설명하였다.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차이점을 보면 중학생의 경우, 학업 스트레스, 감정표현불능증, 어머니의 학대, 아버지의 방치 순으로 부정적 정서를 유의미하게 설명하였으며, 총 변량의 40%를 설명하였다. 이에 비해 고등학생의 경우, 감정표현불능증, 학업 스트레스, 아버지의 학대 순으로 신체화 증상에 유의미한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총 변량의 28%를 설명해 중학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설명변량이 작았다.

학업 스트레스가 부정적 정서를 가장 잘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난 바, 학업 스트레스를 설명하는 요인들을 알아보기 위해 학업 스트레스를 종속 변인으로 하고 설명변인으로 감정표현불능증, 부모양육행동, 성, 학교(중, 고), 자기 평가 성적, 전체척차, 등을 넣어 단계적 중다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5를 보면, 어머니의 과잉간섭이

표 5. 학업 스트레스에 대한 감정표현불능증,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행동, 성, 학교(중, 고), 자기 평가 성적, 전체석차의 중다 회귀 분석표(N=232)

예언변인	R	R ²	R ² 증가량	Beta	F 변화량
모의 과잉간섭	.28	.08		.17	18.43*
부의 합리적 설명	.35	.13	5%	-.22	16.06***
감정표현불능증	.40	.16	3%	.22	14.59***
성	.43	.18	2%	.15	12.57*
자기 평가 성적	.45	.20	2%	.36	11.33***
모의 과잉기대	.47	.23	3%	.18	10.67*
전체 석차	.49	.25	2%	-.24	10.19*
모의 애정	.51	.26	1%	.14	9.59*

* $p < .05$. ** $p < .01$. *** $p < .001$.

학업 스트레스에 가장 큰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총 변량의 7.5%를 설명하였다. 다음으로 아버지의 합리적인 설명, 감정표현불능증, 성, 자기 평가 성적, 어머니의 과잉기대, 전체 석차, 어머니의 애정 등이 유의미한 설명 변인으로 이들 변인의 총 설명 변량이 26%였다. 어머니의 과잉간섭과 과잉기대가 유의미한 설명 변인으로 포함되었으며, 어머니의 그러한 양육행동이 아버지의 그것과 상관이 매우 높은 바, 부모의 과잉간섭과 과잉기대가 학업 스트레스에 큰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비해 실제 석차는 학업 스트레스를 미미하게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가적인 중다 회귀 분석에서 남학생과 여학생의 차이점을 보면, 남학생의 경우, 감정표현불능증, 어머니의 과잉 간섭, 아버지의 감독 순으로 학업 스트레스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총 변량의 22%를 설명하였다. 이에 비해 여학생의 경우, 아버지의 과잉 기대, 아버지의 학대가 학업 스트레스에 유의미한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총 변량의 17%를 설명하였다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차이점으로, 중학생의 경우, 어머니의 과잉간섭, 감정표현불능증 순으로 학업 스트레스를 유의미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 변량의 21%를 설명하였다. 이에 비해 고등학생의 경우, 어머니의 과잉기대, 어머니의 감독, 성, 자기 평가 성적 순으로 학업 스트레스에 유의미한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총 변량의 19%를 설명하였다

논 의

한국 청소년에게서 신체화 증상의 기제를 이해하기 위해 학업 스트레스, 부정적 정서, 감정표현불능증, 부모의 양육행동, 성적 등 다양한 변인들을 고려해 연구한 결과, 신체화 증상, 학업 스트레스, 부정적 정서, 및 감정표현불능증 등이 상호 상관이 큰 것으로 나타났고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방치와 학대가 신체화 증상과 비교적 큰 상관관을 보였다. 신체화 증상을 설명하는데 가장 유의미한 설명 변인은 부정적 정서였으며, 다음으

로 아버지의 방치하는 양육행동, 어머니의 학대, 성, 아버지의 비밀관적인 양육행동, 학업 스트레스, 스스로 평가한 성적이 유의미한 설명 변인이었다. 세부적인 부정적 정서에서는 특히 애태움, 허무, 분노, 고독, 상실 등이 신체화 증상과 .40 이상의 상관을 보여 청소년의 걱정, 실패에 대한 두려움, 및 현 상황에 대한 불만 등이 신체화 증상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해 수치, 권태, 연민 등의 정서는 신체화 증상과 큰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부정적 정서를 설명해 주는 요인으로는 학업 스트레스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감정표현불능증, 어머니의 학대, 아버지의 비밀관적인 양육행동이 유의미한 설명 변인이었다. 이들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청소년의 신체화나 부정적 정서 등 정신건강과 큰 관련성이 있는 요인들로 학업 스트레스, 감정을 적절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성격 특성, 부모의 방치, 비밀관적인 양육, 및 학대 등 부모로부터 제대로 돌봄을 받지 못하는 것 등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 스트레스를 설명해 주는 요인들로는 어머니의 과잉간섭이 가장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아버지의 합리적인 설명이 부족한 것, 감정표현불능증, 성, 자기가 스스로 평가 성적, 어머니의 과잉기대, 전체 석차, 어머니의 애정 등이 유의미한 설명 변인이었다. 어머니의 과잉간섭과 과잉기대는 아버지의 그것과 상관성이 매우 높은 바, 부모양육행동 중에서는 과잉간섭과 과잉기대가 학업 스트레스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결과들을 보면, 부모양육행동 중 과잉기대나 과잉간섭이 학업 스트레스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전반적인 정신 건강에 있어서는 부모의 방치나 학대, 비밀관적인 양육 태도가 더 나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부모의 높은 기대와 지나친 간섭에다가 자기 감정을 적절하게 표현하지 못할 때, 그리고 스스로 공부를 못 한다고 생각할수록 학업 스트레스가 커지고, 학업 스트레스가 클수록 불안이나 우울, 분노감 등의 부정적인 정서를 많이 경험하며, 부정적인 정서는 신체 증상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신체 증상을 경험하는 데에는 학업 스트레스 이외의 다른 요인들, 즉 부모양육행동의 비밀관성, 학대, 방치 등이 관련되어 있는 바, 심리 사회적 환경이 열악한 것이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성인을 대상으로 했던 연구들에서 밝혀진 것과 유사하게 본 연구에서 청소년의 경우에도 부정적 정서가 높을 경우 더 많은 신체 증상을 보고한다는 것이 밝혀졌다. 부정적 정서성이 높은 경우 모호한 자극을 부정적이거나 위협적인 방식으로 해석하는 바(Watson과 Clark, 1984), 자기 신체 상태에 대해 더 경계하며, 미묘한 신체 감각을 감지하는 역치가 더 낮아져 신체 역기능을 더 쉽게 지각할 수 있다(Costa & McCrae, 1987; Watson & Pennebaker, 1989; Gray, 1982; Tellegen, 1985). 이처럼 부정적 정서는 인지적 해석 방식에도 영향을 주어 지각된 증상의 의미에 대해 더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만들어 신체 증상을 더 많이 느끼게 할 수 있다. 본 연구 결과에서 애태움, 허무, 분노, 등의 세부 정서가 특히 신체화와 큰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성적과 관련된 불안감이 신체 감각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지각하게 만들 가능성이 시사된다. 이처럼 청소년들에게서 부정적 정서가 인지 과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애태움, 분노, 불안 등으로 인해 교감 신경계가 지속적으로 활성화되어 두통, 소화 불량 등의 신체 증상을 유발할 가능성도 시사된다. 개별 신체 증상과

세부적인 부정적 정서, 학업 스트레스 등과의 관계에 대해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성과 연령에 따른 차이를 보면, 여학생이 신체화 증상을 더 많이 보고하였고 ($F(1, 231) = 8.29, p < .01$), 학업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데서 아버지의 과잉 기대와 학대가 중요한 설명력을 지닌 데 비해, 남학생의 경우에는 감정표현불능증이 학업 스트레스에 가장 큰 설명력을 갖고 다음으로 어머니의 과잉 간섭이 설명력이 큰 것으로 나타나, 이성 부모의 양육행동에 의해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감정표현불능증은 성과 학교(중, 고)의 상호작용이 유의미한 경향성을 보였다 ($F(1, 1) = 3.59, p = .06$). 즉 중학생의 경우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감정표현을 더 잘하지만,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이와 반대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감정표현 등의 의사소통 능력에서 어려움을 보여, 스트레스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할 가능성이 시사되었다. 신현균(2000)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남학생의 경우 감정표현불능증이 신체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한국 문화에서 여성에 비해 남성이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화된 인식으로 인해 감정표현을 잘 하지 못해 부정적 정서나 스트레스를 경험하는데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청소년의 실제 성적은 학업 스트레스, 신체화 증상, 및 부정적 정서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청소년의 정신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실제 학업 성취도보다는 학업에 대한 주관적인 부담감과 감정표현불능증 같은 성격 특성, 그리고 부모의 양육태도 등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한국 청소년의 신체화 증상에 효과적으로 개입하기 위해서는 학업 부담감과 부정적인 정서, 부모의 양육태도, 감정표현불능증 등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해 부모 교육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감정 표

현, 의사소통 훈련, 불안이나 우울, 분노감 등의 부정적 정서를 완화시키는 교육 등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성과 연령에 따라 다소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는데, 예를 들어 남학생의 경우 연령이 증가할수록 감정 표현의 어려움을 보인다는 점을 감안해 고등학교 남학생에게는 자신의 감정을 정확히 인식하고, 이를 적절하게 표현하고 의사소통하는 방법을 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한국 사회의 특성상 자식에 대한 부모의 기대가 커 청소년 자녀에게 지나치게 간섭하고 공부를 강요하는 경향이 시사된다. 그러나 이로 인해 공부에 대한 부담감과 더불어 자율성을 침해당한다고 느낄 때 청소년의 스트레스가 커진다는 것(사회정신건강연구소, 1997; Eskilson, Wiley, Muchlbauer, & Dodder, 1986)과, 학대나 방치 같이 관심과 사랑이 부족할 때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준다는 점을 감안해 청소년을 둔 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이 시사된다. 청소년은 부모가 많은 관심을 보이고 충분한 시간을 함께 보내며, 필요할 때 기꺼이 자녀를 돕고 지원하려 할 때 부모가 자신을 돌봐 준다는 것을 느낀다 (Amato, 1990; Gecas & Seff, 1990). 또한 부모의 긍정적인 지지는 청소년의 자아 존중감을 높여주고 학업성취도를 높여주는데 비해, 부모의 지지가 결여될 경우 정반대의 영향을 준다(Argyle & Henderson, 1985). 따라서 부모의 따뜻한 관심과 더불어 청소년의 자율성을 침해할 정도의 지나친 간섭을 줄이는 것이 부모 교육에서 강조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학업 스트레스, 부정적 정서, 감정표현불능증, 및 부모양육행동 등이 신체화 증상을 어느 정도 설명해줄 수 있는지를 밝혔지만, 연구의 제한점으로 이들 변인들의 상호작용이나 매개 과정 등 세부적인 기제에 대해 규명하지 못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따라서 후

속 연구에서는 학업 스트레스가 불안, 초조감 등의 부정적 정서를 유발하고, 부정적 정서가 신체 감각의 증폭 지각이나 역기능적인 귀인 양식 등과 같은 인지 과정의 매개를 통해 신체화에 영향 주는지를 밝히기 위해 경로 분석 등의 방법을 사용한 모델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전반적으로 모호한 신체화 증상에 대해 조사했지만, 후속 연구에서는 한국의 청소년들이 많이 겪고 있는 두통, 소화불량, 나른함 등 개별 신체 증상을 유발하는 기제에 대해서도 연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청소년의 신체화 유발 기제가 규명되고 나면 신체화 증상을 경험하는 청소년과 부모를 대상으로 연령과 성에 따른 차별적인 예방 및 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승호 (1999). 고등학생들의 스트레스와 학업성적 및 정신건강간의 관계연구. 한국교육심리 13권, 20-32.
- 고경봉 (1994). 신체화의 개념과 기전 신경 정신과 제 2차 회원 연수 교육.
- 김광일, 김재환, 원호택 (1984). 우울증의 증후학적 연구. 제 2편: 한국인 우울증 증상의 양상. 신경정신의학, 16, 46-52.
- 노혜숙 (1986). 일부 여자 중학생의 자아개념 및 스트레스와 적응행동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청구논문.
- 사회정신건강연구소 (1997). 수험전쟁에 시달리는 청소년.
- 사회정신건강연구소 (1999). 학업성취와 청소년의 정신건강.
- 송지영, 김태수, 오동재, 윤도준, 염태호 (1994). 동통을 가진 신체형장애 환자에서 감정표현 능력과 압통역치. 정신신체의학, 2(1), 69-79.
- 신현균 (1998). 신체화 집단의 신체감각에 대한 해석, 추론 및 기억 편향.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신현균 (2000). 부정적 정서, 감정표현불능증, 신체감각 증폭지각, 및 신체적 귀인이 신체화에 미치는 영향 : 매개모델의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1), 17-32.
- 신현균, 원호택 (1997). 한국판 감정표현불능증 척도 개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6(2), 219-231.
- 신현균, 원호택 (1998). 신체화의 인지특성 연구(II): 신체화 환자의 신체감각에 대한 지각, 귀인 및 기억 편향.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7(2), 41-54.
- 안신호, 이승혜, 권오식 (1994). 한국어 정서단어의 분석: 정서단어의 유사성구조와 정서체현의 구조.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8(1), 150-175.
- 오미향, 천성문 (1994).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요인 및 증상 분석과 그 감소를 위한 명상훈련의 효과. 인간이해 제15집, 63-96.
- 옥정 (2001). 청소년기 애착유형과 지각된 부모양육행동- 재소중인 비행집단, 위험집단, 정상집단의 비교.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0(2), 259-270.
- 원호택, 신현균 (1998). 신체화의 인지특성 연구(I): 한국판 신체감각 증폭척도와 증상해석 질문지의 신뢰도와 타당도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7(2), 33-39.
- 원호택, 이민규 (1987). 고등학교 재학생들의 스트레스. 한국임상심리학회지, 6(1), 22-23.
- 이경아 (1999).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과 심리치료, 11(1),

- 213-226.
- 이은희 (2000). 남녀 청소년들의 우울에 미치는 학교스트레스, 자아존중감, 부모-자녀 의사소통 및 부모의 내재적 지원의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과 심리치료*, 12(2), 69-84.
- 허묘연 (2000).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 양육행동 척도개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Amato, P. R. (1990). Dimension of the family environment as perceived by children: A multidimensional scaling analysi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2, 613-620.
- Argyle, M., & Henderson, M. (1985). *The anatomy of relationships*. Harmondsworth, Middlesex, England: Penguin.
- Bagby, R. M., Parker, J. D., & Taylor, G. J. (1994). The twenty-item Toronto Alexithymia Scale-II. Convergent, Discriminant, and Concurrent Validity. *Journal of Psychosomatic Research*, 38(1), 33-40.
- Barsky, A. J., & Klerman, G. L. (1983). Overview: Hypochondriasis, bodily complaints, and somatic styles.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40, 273-283.
- Beecher, H. K. (1966). Relationship of significance of wound to pain experienced. *Journal of the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161, 1609-1613.
- Beiser, M. (1974). Components and correlates of mental well-being.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15, 320-327.
- Beutler, L. E., Engle, D., Oro-Beutler, M. E., Daldrup, D., & Meredith, K. (1986). Inability to Express Intense Affect: A Common Link Between Depression and Pai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4(6), 752-759.
- Bradburn, N. M. (1969). *The structure of psychological well-being*. Chicago: Aldine.
- Cicchetti, D., & Toth, S. L. (1995). A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perspective on child abuse and neglect.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 Adolescent Psychiatry*, 34, 541-565.
- Costa, P. T. Jr., & McCrae, R. R. (1987). Neuroticism, somatic complaints, and disease: Is the bark worse than the bite? *Journal of Personality*, 55, 299-316.
- Eskilson, A., Wiley, M. G., Muehlbauer, G., & Dodder, L. (1986). "Parental Pressure, Self-esteem and Adolescent Reported Deviance: Bending the Twig Too Far." *Adolescence*, 21, 501-515.
- Gecas, V., & Seff, M. A. (1990). Families and adolescents: A review of the 1980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2, 941-958.
- Gray, J. A. (1982). *The neuropsychology of anxiety; An inquiry into the functions of the septo-hippocampal system*.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Harding, S. D. (1982). Psychological well-being in Great Britain: An evaluation of the Bradburn Affect Balance Scale.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 167-175.
- Hill, H. E., Kornetsky, C. G., Flanary, H. G., & Wilder, A. (1952). Effects of anxiety and morphine on the discrimination of intensities of pain. *Journal of Clinical Investigation*, 31, 471-480.
- Katon, W. (1986). Panic disorder: epidemiology, diagnosis, and treatment in primary care. *Journal of Clinical Psychiatry*, 47, 21-27.
- Katon, W., Kleinman, A., & Rosen, G. (1982). Depression and somatization, a review: part I. *American Journal of Medicine*, 72, 127-135.
- Larson, D. G., & Chastain, R. L. (1990). Self-concealment: Conceptualization, measurement

- and health implications.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9, 439-455.
- Malatesta, C. Z., Jonas, R., & Izard, C. E. (1987). The relation between low facial expressivity during emotional arousal and somatic symptoms. *British Journal of Medical Psychology*, 60, 169-180.
- Omizo, M. M., Omezo, S. A., and Suzuki, I. A. (1988). Children and stress: an exploratory study of stressors and symptoms. *The school counselor*, 267-274.
- Pennebaker, J. W., Kiecolt-Glaser, J. K., & Glaser, R. (1988). Disclosure of traumas and immune function: Health implications for psychotherap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6, 239-245.
- Perris, C., Arrindell, W. A., & Eisemann, M. (1994). *Parenting and Psychopathology*. England: John Willy & Sons Ltd.
- Rey, J. M., & Plapp, J. M. (1990). Quality of perceived parenting in oppositional and conduct disordered adolescents.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 Adolescent Psychiatry*, 29, 382-385.
- Romano, J. M., & Turner, J. A. (1985). Chronic pain and depression; Does the evidence support a relationship? *Psychological Bulletin*, 97, 18-34.
- Sternbach, R. A. (1978). *The psychology of pain*. New York: Raven Press.
- Taylor, G. J. (1984). Alexithymia: concept, measurement, and implications for treatment.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41(6), 725-732.
- Taylor, G. J., Bagby, R. M., & Parker, J. D. A. (1991). The alexithymia construct : a potential paradigm for psychosomatic medicine. *Psychosomatics*, 32(2), 153-164.
- Tellegen, A. (1985). Structures of mood and personality and their relevance to assessing anxiety, with and emphasis on self-report. In A. H. Tuma, & J. D. Mase(Eds.). *Anxiety and the anxiety disorders*(pp. 681-706). Hillsdale, NJ: Erlbaum.
- Watson, D., & Clark, L. A. (1984). Negative affectivity: the disposition to experience aversive emotional states. *Psychological Bulletin*, 96, 465-490.
- Watson, D., Clark, L. A., & Tellegen, A. (1988).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Brief Measures of Positive and Negative Affect: The PANAS Scal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4(6), 106-112.
- Watson, D., & Pennebaker, J. W. (1989). Health complaints, stress, and distress: Exploring the central role of negative affectivity. *Psychological Review*, 96, 234-254.
- Wiebe, D. J. (1994). Behavioral self-regulation in adolescents with type I diabetes: Negative Affectivity and blood glucose symptom perceptio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2(6), 1204-1212.
- Wilson, D. R., Widmer, R. B., & Cadoret, R. J. (1982). Somatic symptoms: a major feature of depression in a family practice.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 5, 199-207.
- Wittenborn, J. R., & Buhler, R. (1979). Somatic discomforts among depressed women.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36, 465-471.

원 고 접 수 일 : 2001. 12. 1.
수정원고접수일 : 2002. 1. 9.
게 재 결 정 일 : 2002. 1. 25.

The Relationship of Academic Stress, Negative Affectivity, Alexithymia, and Perceived Parenting Behavior to Somatization in Adolescents

Hyun-Kyun Shin

Seoul Institute of Clinical Psychology

The present study examined the relationship of academic stress, negative affectivity, alexithymia, and perceived parenting behavior to somatization to investigate the mechanism of somatization in Korean adolescents. The participants were 232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and correlation and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es were conducted. The results showed that academic stress, negative affectivity, alexithymia, and somatization were significantly related each other and correlations between somatization and parent's neglect and abuse were also significant. Negative affectivity score best explained somatization, and father's neglect, mother's abuse, sex, father's inconsistent parenting behavior, academic stress, and self-rated academic achievement were significant factors also. Negative affectivity was explained by academic stress, alexithymia, mother's abuse, and father's inconsistent parenting behavior. And academic stress was explained by mother's over interference, mother's high expectation, academic achievement level, and mother's love. The meanings of these results and differences according to sex and age, and suggestions for improving adolescents' mental health were discussed.

Keywords : somatization, academic stress, negative affectivity, alexithymia, perceived parenting behavior